



강창원 회장  
한국유기축산연구회

2005년 9월 6일 한국유기축산연구회가 창립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유기농의 성장이 경종농업에 편중되고, 유기축산 분야는 미진한 상태로 진행되어 장차 우리나라에서 순환형 친환경유기농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산 유기축산물의 수입에 대한 논란이 이는 등 우리나라의 유기축산에 대한 관심부재를 안타깝게 여기던 산·학·연·언론계의 축산인이 모여 본 연구를 발족하게 되었다. 연구회는 그간 몇 차례 준비위원회를 통하여 본회의 성격을 연구모임으로 하고 영어명을 Korean Organic Livestock Research Association(KOLRA)라고 표기하는데 합의했다. 그리고 연구회의 목적을 좀더 조직적이고 심도있는 유기축산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술연구회 및 국제학술교류, 세미나, 심포지움, 기술강습회 등을 개최하며 학술연구지 및 정보지 발간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회는 아주 기초적인 유기축산의 개념 정립에서부터 시작하여 유기축산에 관련된 이론과 기술개발 및 국내외 각종 제도나 정책에 관한 정보수집과 교환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축산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친환경 웰빙(well-being)을 지향하는 시대적인 흐름과 함께 국내외적으로 급속도로 확장되는 친환경유기농 시장과 수요에 대처하고 우리농업을 지속가능한(sustainable agriculture) 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힘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창립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그 이후에 격려의 목소리와 더불어 걱정어린 목소리가 병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과 시대의 흐름을 좀더 냉철히 생각해 보면 본 연구회와 같은 모임의 발족은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 격려와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독일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한 친환경유기농업은 1990년대에 들어 유럽은 물론 북미와 호주등지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

# 한국유기축산연구회 창립의 의미

다. 2001년 7월 유기축산식품에 관한 Codex 규범이 제정되었고, 우리나라도 Codex 규범을 근간으로 하여 친환경 농업육성법의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도 8개의 민간인증기관(2005년 8월 현재)이 설립되어 인증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국내유기축산 인증을 받은 것은 돈육 한품목, 계육 두품목, 계란 4품목으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매우 미진한 단계에 불과하다. 반면 국내시장의 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외국산 유기축산물이 수입이 닥쳐와도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처가 매우 허술한 형편이다. 지난 2004년 6월 호주산 유기농 쇠고기 수입에 따른 갈등과 논란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회의 할 일은 참으로 많고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유럽에서 기초한 Codex 규범을 그대로 우리나라, 일본, 중국과 같이 문화와 입지환경이 서구와 다른 지역에서도 이를 가감없이 그대로 적용 시키는 것이 정말로 적절한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항생제나 합성호르몬과 같은 인위적 합성물의 사용 없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대체물질 및 사양기술을 개발하여 유기축산물 생산비 절감대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는 유기사료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유기축산에서 얻어지는 분뇨의 재활용을 통한 순환형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전통적인 축산방식에서 얻어지는 축산물과 유기축산물중 어느 것이 더 좋으냐라는 경쟁적인 비교개념을 극복하는데 노력해야한다. 자칫 잘못하면 같은 축산인들 간에도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즉 유기농법에 의해서 생산된 축산물이 전통적인 대규모 집약적 생산에서 얻어진 것보다 더욱 고품질이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우열논쟁을 일으키기 쉽다. 이는 바람직한 논쟁이 아니다. 집약적이고 대규모 생산으로 얻어지는 축산물이 국민 건강과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결코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 보다는 사람들의 다양한 취향에 맞게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축산물의 소비증진 전략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별화 전략에 따라 유통과 소비를 증진시켜 축산인 모두를 만족 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국내 재래종 가축 즉 토종닭, 돼지, 한우, 펭 및 염소 등의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외국 축산물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는 블루오션전략(Blue ocean strategy)을 활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재래가축을 친환경적인 유기농법으로 생산하고 차별화된 동물성식품화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시대흐름에 따른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우리축산물의 국제경쟁력 증진에 기여하는 연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㉞